주님 봉헌 축일
축성 생활의 날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미디어국 | 055·249·7072 media2@cathms.or.kr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홈페이지** http://cathms.kr

봉헌의 기억

하느님께 온전히 바치는 예수님의 첫 봉헌을 오늘 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모세의 율법에 따라 첫 아들을 하느님 몫으로 바치는 봉헌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이 봉헌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해방 되었던, 구원의 역사라는 기억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첫 아들로 바치는 봉헌 역시 인간 구원의 역사라는 기억이 들어있었고, 그 기억은 십자가의 봉헌이라는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디딤돌이 된 것입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녀의 유아세례에 대해 자녀의 신앙은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면서 미루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의 장래를 위해 보험도 들고, 필요하다면 자녀들을 마음대로 이끌고 가면서 자녀를 주님께 봉헌하는 것에는 너그러운 것입니다. 사실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자녀를 하느님께 봉헌하여 하느님의 사랑에 맡겨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봉헌 축일에 하느님께 봉헌한다는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봉헌에 대한 기억을 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 우리의 봉헌을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없이 무조건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때 이마에 크리스마 기름으로 인호를 새기며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느님 것이라는 봉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을 어느 사이엔가 잊고서 우리 자신의 것을 더 많이 챙기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게 만드는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진선진 마태오 **신부** | 반송주임

주일 전례

제 1 독 서	말라 3,1–4
화 답 송	◎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제 2 독 서	히브 2,14–18
복 음	루카 2,22–40

주일 전례

부활 감수성
월 영 성 당

조정자 이사벨라

‘월영’은 달그림자라는 뜻이다. 신라시대 때 격문을 써서 적을 퇴치한 당대 최고의 문필가 최치원이 유랑생활을 하다 말년에 머문 곳이 월영대이고 월영동은 여기서 유래되었다. 뛰어난 문장가이자 사상가였던 그는 신분의 벽을 넘기 위해 유학을 다녀왔으나 신분제도의 아성에 막혀 좌절하고 만다. 그의 비애와 천재성이 응집해 승화된 이름 월영, 그래서인지 월영 신자들은 저마다의 본성에 월영이라는 의미가 유입되면서 신앙의 감수성이 촉발한 것이다.

통일의 상징, 성모자상

성당 마당을 들어서면 정면에 하얀 대리석으로 조각한 성모자상이 우리를 맞이한다. 북한 황해도의 화강석으로 만든 성모자상은 높이 160cm 규모로 성모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는 좌상이다. 예사로 보면 그저 그러려니 하겠지만, 설치 과정을 알고 보면 매우 의미가 깊다. 이 조각상은 월영성당 교우이자 경남대 교수인 임형준 형제가 평양미술대학 출신 조각가들과 공동으로 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처음에는 종교적 조형물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 성모자상이 아닌 모자상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종교의 자유가 없는 북한 작가에게 성모자상을 제작하자는 것은 어려웠기 때문이다. 지금은 북한에서 제작하고 남한에 설치되었다는 그 자체만의 의미에 머물러 있지만. 남북이 하나 되는 그날이 오면 일치의 상징물로 전국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지도 모를 일이다.

살아서 바라보시는 주님

대성전의 십자고상은 황금색이다. 황금 십자고상은 옆구리에 상처가 없다. 옆구리의 상처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다는 상징이며 가장 잔인한 폭력으로 연상되기도 한다. 그 상처를 새기지 않았다. 당시 사제는 작가에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표현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리하여 옆구리의 상처를 새기지 않고 고상에 황금을 입혔다. 청빈을 내세우는 교회의 정신에는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전지전능하시고 삼위일체이신 예수님을 최고로 섬기고 싶은 마음에서 황금 십자가상을 바쳤다. 좌우 유리창의 스테인드글라스도 이와 연결하였다. 오른쪽으로는 새벽을 상징하는 푸른색을, 왼쪽은 해질녘의 노을을 담았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이다.

성전건립 때 드러난 일치의 기적

성전건립이 확정되자 전 신자가 양파를 캐러 간 적이 있었다. 종일 양파를 캐주고 받은 일당 3만원씩을 성전건립에 보태고 녹용엑기스도 팔러 다녔다.

공동체 안에서도 차별은 존재하고 그 차별은 끊임없이 배척과 배제를 낳으며 분열을 조장한다. 개인이 느끼는 차별이 가정공동체를 넘어 구성원에게까지 미치면 예수님과의 관계도 불편해지고 인간관계도 이와 같이 되어버린다. 성전건립은 이런 악습을 돌파하는 신의 한 수가 되었다. 살면서 한 번도 머리를 조아릴 일이 없다가 녹용을 팔기위해 남편의 직장동료를 찾아가 굽실거리고 뙤약볕에 쪼그리고 앉아 종일 양파를 캤다. 환대만 받아오다 박대를 받아보고 심한 노동으로 온몸이 욱신거렸다. 예수님만 아니면 이 고생을 할 이유가 없노라고 투덜거릴 만도 하련만, 편하게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자성自省했다. 그리고 발설하지 않았다. 하나의 불평은 모두의 불평이고 하나의 찬사도 모두에게 해당되기에 끓어오르는 말들을 곰삭혔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건립기금을 대출 내거나 먼저 약정을 해 놓고 차차 갚아 나갔다. 이로 인해 신자들은 빚이 있지만 성당은 빚 하나 남기지 않았다. 돌이켜 보면 그때가 바로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백성이 사는 모습이 아니었나 싶다. 성령이 사제의 몸을 통해 우리를 움직였고 우리는 그것을 스스럼없이 받아들였다. 이것이 일치가 아닐까. 일치는 빠르게 번지며 신자들을 독려하였다.

부활에 기초한 월영성당

1998년 1월 월남동성당에서 분가했을 때의 명칭은 해운동성당이었다. 초대주임은 유영봉 야고보 몬시뇰이었고, 주보성인은 성 야고보 사도이다. 시민버스 차고를 개조하여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가건물에서 임시성전 생활을 해야 했다.

주소는 해운동이지만 월영동이란 이미지가 큰 이곳은 성당의 명칭으로 인한 혼란이 많이 생겨, 신자들에게 설문을 조사한 후에 2004년 9월 '월영성당'으로 변경했다. 대신 성당 명칭에서 '동'이란 글자는 빼게 되었다. 그리고 2008년 7월 노영환 마티아 신부님 때 지금의 건물로 신축하면서 가건물의 생활을 마감하게 되었다.

바다가 매립되면서 땅이 생기고 그곳에 수천 세대의 아파트가 운집한 가운데 들어선 월영성당을 두고 혹자는 뜨내기들의 집합소 혹은 정체성이 없다고도 했다. 현대사회는 뜨내기가 중심세상이다. 직장 따라 환경 따라 떠돌다보면 끼리끼리 모이고 끼리끼리가 새로운 문화를 주도해 가면서 토착한다. 월영의 정체성은 '없는 것이 정체성'이다. 성인의 유해도 성전이 들어설만한 유래도 최초란 수식어도 없지만, 없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시작이 가능하다. 바다가 땅이 되고 그 땅 위에 세워진 성전처럼, 없음에서 있음으로 이어가는 것이 월영이고 그 중심은 사람이었다. 예수님의 죽음이 신앙의 근간이라면 부활은 삶의 방향이고 그 삶은 밝고 활기차야 한다는 본당 사제의 말이 이제는 월영의 이미지가 되었다.

세계 교회의 다양성 안의 일치

김종훈 엠마누엘 신부/ 광주가톨릭대학교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2020년(Anno Domini MMXX)

주님의 해 2020년에 로마 주교인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당신 재위기간 중 가장 중요한 한 해를 보내실 것으로 보입니다. 교황님의 최근 행보는 마치 당신의 마지막 해를 살아가시는 것 같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티칸 인사와 관련 있습니다. 최근 교황님은 바티칸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추기경단의 안젤로 소다노 수석 추기경을 은퇴시켰습니다. 다른 한편, 교회의 미래 지도자인 필리핀의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을 가장 강력한 바티칸 부서인 '인류 복음화성' 장관에 임명하였습니다. 이는 교황님께서 베드로좌의 차기 후계자를 염두에 둔 신호탄이라고 읽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020년에는 적어도 두 가지의 매우 의미 있는 교황 문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문서는 지난해 10월 아마존 주교 시노드와 관련한 사도적 권고입니다. 이 권고의 첫 번째 주제는 '검증된 기혼 남성'(viri probati)에 대한 사제 서품과 관련된 것입니다. 어떤 결정들이 선포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 주제는 교황청의 한 위원회에서 연구되고 있는 여성 부제직과 직무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존의 원주민들을 존중하는 문화적 요소가 부분적으로나마 전례 안에 포함되는 문제입니다. 지난 아마존 주교 시노드의 후속 작업인 이 사도적 권고는 진정한 세계 교회의 출현을 알리는 전환점으로서 새로운 개혁의 길을 열 것입니다.

교황님의 개혁 주문에 맞추어 6인의 추기경 자문위원회에 의해 준비되고 있는 두 번째 문서는 로마 꾸리아(Roman Curia)라고 일컬어지는 교황청 성성들의 구조와 역할을 개혁하는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십시오"(Praedicate evangelium)라고 이름 붙인 이 교황령은 교회의 새로운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최근에 발표된 〈추기경단의 수석 추기경 직무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성하의 자의교서〉와 교황청 국무원 첫 여성 차관 임명은 이러한 교회의 구조적 개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교황님께서는 당신의 전 세계적 사목 방문을 지속하실 것입니다. 올해도 교황님께서는 당신을 '덜 반기는 곳'(not-so-friendly skies)으로 향할 것입니다.

이런 저런 연유로 교황님께서는 바쁜 한 해를 보내실 것 같습니다. 매 미사 때에도 기억하지만, 더욱더 교황님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세계 교회의 〈다양성 안의 일치〉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가끔 종교가 뭔지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톨릭입니다!" 그러면 다시 "어디 가톨릭입니까?"라는 질문이 되돌아옵니다. '아니 가톨릭이 하나이지 무슨 가톨릭이라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로마의 주교인 교황을 중심으로 '일치와 친교(Communio)'를 이루고 있는 '보편 교회

(Catholic)'입니다. 그래서 '로마-가톨릭 교회'라고 구별해서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교리와 전례, 교회법 등에 의해 많은 분열이 있었습니다. 분열의 역사가 다양성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초기에는 신앙 안에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긴 박해시대를 지나고 드디어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밀라노 칙령) 더 나아가 380년 그리스도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됩니다.(테오도시우스 황제의 테살로니카 칙령) 이러한 역사 과정은 신앙 전통을 수립하고 교회를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325년 제1차 니케아 공의회부터 787년에 열린 제2차 니케아 공의회까지 일곱 공의회에서 중요 교리와 신학적인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이단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마침내는 1054년 동서방 교회가 상호 파문을 통해 분열되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삼위일체 친교의 교리 안에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내려오는' 전통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도적 전승에 의해 교회는 일치하고 있으며, 그 상징적 존재가 교회의 반석인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입니다. 세상의 가톨릭 교회는 로마 주교인 교황과의 친교적 일치(communion) 안에 머물러 있는 교회입니다. 교황님을 중심으로 한 '교회 일치의 대전제'를 두고, 서방과 동방의 전례법과 교회법에 따라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로마 주교인 교황과 일치를 이루고 있으며, 로마 전례법과 교회법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전례적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로마 전례가 아닌, '밀라노 전례'를 인정하기도 합니다만 '로마 가톨릭'의 범주에 포함시킵니다.(교황 베네딕도16세에 의해 허용된 '트렌트 전례' 역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통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신 '나자렛'의 회당(Synagogue; 루카 4,16-28참조)에 가면, 회당 교회 앞에는 노란색과 흰색의 '교황기'가 걸려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의 사제는 동방 교회 사제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그들은 '마론 그리스 가톨릭 교회'(Maronite Creek Catholic Church)에 속합니다. 이 교회는 시리아의 성 마론의 이름을 딴 동방 가톨릭 교회입니다. 마론파에 속하면서 동방 전례를 행하고, 동방 교회법에 의해 자치적(sui juris) 운영되는 교회이지만, 로마의 주교인 교황과 일치하고 있기에 〈가톨릭 교회〉입니다.

이렇게 동방 가톨릭 교회는 총 23개의 종파(전례법에 따라, 비잔틴, 동시리아, 서시리아, 아르메니아, 알렉산드리아 동방 가톨릭 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 동방 가톨릭 교회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젊은 38세의 주교가 탄생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중동 지역에서 성지순례를 할 때, 교황기가 걸려있는 가톨릭 교회를 만난다면, 형제적 상호 친교를 가지는 것도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더욱이 오늘날 중동과 서방과의 긴장 관계에서 상호간의 형제적 사랑과 친교의 교류는 평화를 구축하는 희망을 가지는 일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방 가톨릭 교회의 38세 주교 서품식 장면

기억할 선종 사제
차기병(F. 하비에르) 신부
1988년 2월 2일

기억할 선종 사제
박두환(베네딕토) 신부
1995년 2월 6일

기억할 선종 사제
김민수(유스티노) 신부
2013년 2월 7일

교구/본당

본당 사목 방문
2월 4일(화): 호계
2월 6일(목): 완월동, 월영

지구장 본당 방문
2월 5일(수): 양덕동, 회원동, 사파동, 양곡, 대방동
2월 6일(목): 산호동, 석전동

고3 피정
일시: 2월 8일(토)~9일(주일) 1박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문의: 청년부 055·249·7065

춘계 가정사목분과위원 연수
일시: 2월 8일(토) 14:00~18:00
장소: 교구청
문의: 가정사목부 055·249·7028

노인학교 봉사자 연수
일시: 2월 10일(월)~11일(화) 1박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문의: 사목국 055·249·7022~3

청소년 성교육
대상: 청소년 성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
일시: 심화교육 2월 29일(토) 09:30~18:00
장소: 교구청 4층 회의실
문의: 가정사목부 055·249·7028

청년성서 그룹 공부 모집
대상: 성경공부에 관심 있는 청년
과정: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문의: 청년성서모임 010·3156·6993

위원회/기관/단체

M.E 월례회
일시: 2월 3일(월) 19:30
장소: 교구청
문의: 가정사목부 055·249·7028

2월 사회교리 (미사와 특강)
일시: 2월 10일(월) 19:00
장소: 교구청 1층 강당
주제: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원인과 해법
강사: 이재봉 교수(원광대)
문의: 정의평화위원회 055·261·8201

교구 합창 단원 모집
연습: 매주(화) 19:30
장소: 교구청 1층 강당
대상: 남·여 신자(만 55세 까지)
문의: 교구 합창단 총무 010·4589·8120

마산장애인복지관 자원봉사자 모집
분야: 맛있는 복지관 식당(조리 및 배식)
청소년 방과후 교실
자기결정 및 옹호프로그램
장소: 마산장애인복지관 및 지역사회
문의: 055·247·5195~7

마산가톨릭교육관 직원채용공고
분야: 주방 1명(교육관 내 거주 가능자)
서류: 이력서, 교적사본(신자), 본당신부님 추천서(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감: 2월 9(주일) 15:00(방문, 우편, e-mail / 우편접수는 마감일 이내 도착 분까지)
문의: 055·221·1891~2(cecomasan@gmail.com)

수도회

가르멜수도회 후원회 미사
일시: 2월 8일(토) 10:30
장소: 마산 가르멜수도원 대성당
문의: 055·271·4241

렉시오 디비나 피정 (말씀으로 기도하기)
내용: 유덕현 아빠스와 함께하는 자연속에서 하느님 만나기
일시: 매주(토) 14:00~(주일) 14:00
장소: 고성 올리베따노 성베네딕도 수도원
문의: 010·2816·1986

제주 면형의집 피정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모든 일정은 왕복항공 포함해서 접수가능)
일정: 2월 7일~9일(한라산), 2월 13일~15일
2월 22일~24일(한라산), 2월 28일~3월 1일(한라산)
3월 4일~7일(추자도), 3월 9일~12일(추자도)
문의: 02·773·1463, 064·756·6009

기 타

2020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 (우편) 신학과정
원서접수: 11월 11일(월)~2020년 2월 7일(금)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대상: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18세 이상, 학력 제한 없음)
문의: 02·745·8339, ci.catholic.ac.kr(원서다운)

부산가톨릭음악교육원 제29회 겨울음악학교
일시: 2월 6일(목)~8일(토)
장소: 부산가톨릭음악교육원
주제: 대림과 성탄 전례 및 전례 특송곡
신청: 1월 30일(목)
문의: 051·517·8241~2 www.bcmusic.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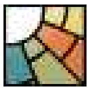
세계 병자의 날 치유 피정
일시: 2월 8일(토) 13:30~17:00
강사: 이진호(안토니오) 신부
장소: 대구성령봉사회관(고령 월막피정의 집)
문의: 010·9045·0191

품격 순례 분도여행사 www.bundotour.com
3월 28일 청년 이스라엘 순례(1980년 4월 1일 이후 출생자) 9일 349 만원
4월 21일 이스라엘 요르단 11일 419 만원
4월 28일 성모발현지 13일 410 만원
분도여행사 02.852.8525

신세계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SM 수맥흙(돌)침대
주보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신문 광고 中
1588-5335

(주) 성운고속관광
"신자분 우대 합니다"
45인승(대형) 성지순례 출퇴근 일반여행 산악회
16인승(벤츠) 골프 VIP 공항투어 웨딩 가족관광
대표 김종규 바오로
010.4588.3448/055.273.0505


초음파 백내장수술 전문
범안과 의원
창원시 용호동 73-62 정우상가 4층 1-1호
055)285-0307 www.wavelasek.co.kr
원장 범진선 다니엘

가톨릭 트래블
산티아고 순례길 41일
루르드/ 파티마 성지 순례 일정
439만원 (20년 4월 2일, 인솔자 동행)
070-4086-0207 www.catravel.co.kr

우리농 생명공동체 우리농 직매장 2호
이용시간 : 월~금 09:00~17:00
토 09:00~15:00
가톨릭여성회관 입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2동 224-7
055.293.5605

골롬반평신도선교사 관심자모임 (해외선교)

일시: 2월 9일(주일) 14:00~17:00
대상: 만23세~만38세, 남·여
장소: 평신도선교사센터(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문의: 02·929·4841 www.columban.or.kr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올레, 미사, 기도, 강의)

일시: 2월 11일~13일, 2월 19일~21일, 2월 27일~29일, 3월 5일~8일, 3월 11일~13일, 3월 17일~19일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의: 064·796·9181

2020 부산가톨릭대 평생교육원 제5기 중독전문가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기간: 3월 14일~11월 28일 매 2,4주(토)
대상: 알코올, 도박 등 다양한 중독의 예방 및 상담에 관심있는 분
수강료: 교양과정 35만 원(총8회)
자격증과정 90만 원(총20회)
자격증: 중독전문가 2급(NO.2014-4368)
접수: 2월 3일(월)~2월 28일(금)
문의: 051·519·0492~4, edu.cup.ac.kr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권민자 수녀)

1박2일: 3월 14일~15일, 4월 18일~19일
3박4일: 2월 22일~25일, 3월 19일~22일
8박9일: 3월 4일~12일, 3월 31일~4월 8일
40일피정: 4월 14일~5월 22일, 6월 16일~7월 25일
장소: 문산 예수마음피정의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오륜대 토요교회사 강좌

개강미사: 3월 7일(토) 14:00
기간: 3월 7일~10월 31일 매(토) 15:00~17:00(60시간)
수강료: 20만 원 ※선착순 60명에 한함
한윤식 신부: 사건별로 보는 세계 교회사
전수홍 신부: 슬라이드로 보는 세계 교회사
한건 신부: 한국 교회사
문의: 051·515·0030

2020년 교황청 어린이전교회 '꿈나무' 여름 캠프

일정: 8월 10일(월)~12일(수)
장소: 삼정부여유스타운
대상: 초등부 3~6학년 선착순 150명
참가비: 8만원(교황청 어린이전교회에서 4만원 지원)
문의: 02·2268·7103, www.pmsk.net

살레시오회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모집

기간: 2020년 3월~12월 (2월 예비학교)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혜택: 교육비 전액무료, 수당지급,
취업(최근 5년 평균 취업률 93.3%)
문의: 02·828·3600, www.donbosco.ac.kr

함안 안나의 집 입소 안내

대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1~4시설 등급자
주소: 함안군 대산면 함의로 944 (대산성당 내)
문의: 055·582·0252, 010·2674·6174

교구 성폭력 피해 접수처

우편: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성폭력 피해 접수처 앞 (우 51727)
E-mail: solace@cathms.or.kr
문의: 055·249·7002~3

유사종교 상담 및 피해사례 접수처

E-mail: samok1@cathms.or.kr
문의: 사목국 055·242·67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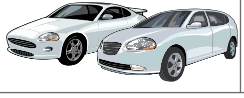
구암동성당 제19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회장: 이진용(요한)
남성부회장: 김효인(베드로)
여성부회장: 엄태양(요안나)
총무분과장: 김주현(베드로)
기획재정분과: 박연석(요셉)
복음화분과: 송현희(스텔라)
전례분과: 황혜정(안젤라)
구역분과: 손점숙(누실라)
사회복지분과: 박영숙(요안나)
홍보분과: 정윤규(파스칼)
시설분과: 조기제(하상 바오로)
청소년분과: 박은정(소피아)

성령기도회	일 시	장 소	주 제	강 사	주례	문 의
교 구	2월 3일(월) 19:00	월남동성당	행복한 신앙인	이진호 신부(안토니오, 대구교구)	이진호 신부	010·5072·5612
창원지구	2월 3일(월) 19:00	반송성당	말씀 안에서 하느님과의 만남	이송자 수녀(그라시아, 파티마성경학교)	정중규 신부(클라로)	010·9421·3377
청 년	매주(화) 19:30	교구청별관지하	성령기도회	19:30 묵주기도 / 20:00 기도회(첫째주 : 미사, 셋째주 : 치유기도)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 시	장 소	문 의	비 고
한국외방선교수녀회	2월 9일(주일) 14:00	부산 부곡동 본원	010·9353·1773 우 노아 수녀	수도생활과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미혼 여성

Club Raphael
라파엘여행사
◈ 이스라엘, 요르단 10일 4/20,5/6(299만원)
◈ 이태리일주 9일 3/12(279만원)
◈ 스페인 포르투칼 10일 3/4(299만원)
◈ 다낭성모님발현 5일 3/30(299만원)
문의 (주)라파엘 여행사 02)778-8565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 (팔용동)
구용출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40년 전통 〈팔보효소〉
생활절식 · 효소단식
▶미 · 중국 수출 ▶부모님 건강 선물
▶간혈적단식 ▶해독요법 ▶효소피정
▶지리산 산청 발효 · OEM 전문
www.palbo.co.kr ☎1600-0830

마르코성지순례
제주 성지순례 (3박4일) 28만 원
성지6개, 신부님동행, 특2급 호텔
010-5150-2625

가톨릭신문투어
▶ 2/15 이탈리아 프랑스 12일 420만원
▶ 2/28 유럽성모발현지 13일 375만원
▶ 3/9 발칸반도(메주고리예) 12일 355만원
▶ 3/12 이스라엘 일주 9일 375만원
▶ 3/15 서부지중해 크루즈 10일 399만원
02.2281.9070
www.cttour.org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저를 받으소서, 그러면 저는 살겠나이다 Suscipe me"

수정 성모 트라피스트 수녀원

"저 ○○○ 수녀는 하느님과 모든 성인들 앞에서,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평생 동정 마리아님의 영예를 위해
세워진 엄률 시토회 수정의 성모 수도원에서
○○○ 아빠티사(여자수도원장)와 모원장 ○○○의 임석 하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성 베네딕도의 규칙에 따라
정주(Stabilitas), **생활개선**(Conversatio Morum), **순명**(Oboedientia)을
서원합니다."

제대 앞에서 이렇게 성대서원을 발한 수녀는 서원문을 제대 위에 봉헌한 후 다시 제대 앞에 서서 아래의 시편 구절을 세 번 노래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저를 받으소서, 그러면 저는 살겠나이다. 주님은 저의 희망을 어긋나지 말게 하소서."

정주 서원을 통해 성 베네딕도께서 제시하시는 착한 일의 영적 도구들을 끊임없이 활용하며 수도원 봉쇄구역과 공동체 안에 항구히 머뭅니다. 청빈과 정결 서원을 포함하는 생활개선 서원을 함으로써 재산 취득과 소유, 자기 몸에 대한 권리마저 포기하고 하늘나라를 위해 완전한 정결을 지킵니다. 순명 서원으로 규칙과 아빠티사 아래에서 자기 뜻을 버림으로써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학교에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이렇게 수녀는 매일 매 순간 이 서원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주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 부활의 파스카 신비를 자신의 것으로 체화體化하며, 죄에 얽매인 낡은 인간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입음으로 나날이 새로운 인간으로 변모되어 갑니다.

그런데… 한해 두해 지나고 수도생활의 시간이 더해 갈수록… 오로지 아버지의 뜻만을 찾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과 달리, 오직 나의 뜻만을 찾고 그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과 방법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정신과 힘을 다하여 주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신 예수님과는 달리, 물질적 풍요와 안락함, 쾌락과 명예, 권력과 지식, 온갖 세속적 가치들과 자아실현의 매력적인 꿈을 쫓아 온 마음과 목숨, 정신과 힘을 다 쏟아 붓는 자신의 '끝없는 욕구'를 '영적 갈망'이라 포장하며 스스로 속이고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축성생활의 날,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봉헌하시며 당신 자신을 봉헌하신 성모님의 삶, 제 서원의 삶을 되돌아보며… 다시금 주님께 아뢰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저를 받으소서, 그러면 저는 살겠나이다. 주님은 저의 희망을 어긋나지 말게 하소서."